

【영산대 화쟁연구소 2022 하반기 학술대회】

화쟁인성은 어떻게 가능한가? (I)

- 원효, 푸코, 사회정서인성학습(SEE Learning)을 중심으로 -

● 일시: 2022.12.3. 토/오후 2시 - 6시

● 장소: ZOOM 화상 회의

● Zoom 회의 참가:

<https://us06web.zoom.us/j/81427339285?pwd=S2FHNDRsR0ZtNDZWTUVlUmFlSU9lZz09>

회의 ID: 814 2733 9285

암호: 370387

(인터넷 주소를 통해 회의 ID나 암호 없이 입장)

● 발표자료집: 당일 Zoom 채팅창에 게시

●모시는 글

지적·정서적·행동적 지향들이 어울린 인성적 면모를 교육으로 변화시켜 사회의 호혜적 관계를 발전·확대시키려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. 인성교육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충분한 철학적 성찰과 학제적 융섭 위에 그 교육 내용이 지속적·역동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.

화쟁연구소는 ‘아이들의 호혜적 관계’에 대한 탐구인 화쟁을 매개로 삼아 인성교육 논의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. 그 첫 행보로 세 가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.

1. 박태원은 <원효철학의 특이점과 인성교육의 접점>을 다룹니다. 원효의 삶과 철학을 관통하는 특이점이 ‘차이/특징(相)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통찰’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그 특이점과 화쟁적 인성교육의 접점을 살펴봅니다.

2. 안은희는 <에토스 제작적 지식과 주체 형성의 문제- 푸코의 후기 사유를 중심으로>를 다룹니다. 푸코의 사유에서 목격되는 ‘에토스 제작적 지식을 통한 주체 형성의 문제’가 지니는 인성교육적 함의를 살펴봅니다.

3. 김현구는 <인성교육의 목표와 화쟁 인성-대학생을 위한 사회정서인성학습(SEE Learning)을 통해>를 다룹니다. 에모리대학에서 개발한 SEE(Social, Emotional, and Ethical) Learning을 통한 화쟁적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.

박태원(화쟁연구소 소장)

● 일정과 내용

시 간	내 용	발 표 자
12월3일 오후 1:45-2:00	ZOOM 회의실 입장	
2:00-2:40	주제 발표1 <원효철학의 특이점과 인성 교육의 접점>	박태원(화쟁연구소 소 장)
2:40-3:20	주제 발표2 <에토스 제작적 지식과 주 체 형성의 문제- 푸코의 후 기 사유를 중심으로>	안은희(서울과학기술 대학교)
3:20-3:30	휴식	
3:30-4:10	주제 발표3 <인성교육의 목표와 화쟁 인성-대학생을 위한 사회정 서인성학습(SEE Learning) 을 통해>	김현구(전남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·SEE Learning Facilitator)
4:10-6:00	질의응답과 종합토론	사회(박태원)